

딸바보 '출산 예능' 진행자, 예비 아빠들에 감동의 순간 증계

박수홍은 1991년 KBS '대학 개그 콘테스트' 공채로 연예계에 데뷔해 코미디팀 '감자골' 4인방(박수홍, 김용만, 김국진, 김수용)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알렸다. 뛰어난 개그 감각은 물론 현철한 외모로 유독 여성 팬을 끌어모았다.



감자골 해체 후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군 입대와 제대 후 1996년 SBS 예능 프로그램 '기쁜 우리 토요일'의 개편 MC를 맡으면서 방송 활동을 재개했다.

편안한 이미지와 부드러운 진행 능력을 앞세워 '기쁜 좋은 밤' '일요일 일요일 밤에' '야심만만' 등 다양한 인기 버라이어티에서 유재석, 강호동 등 톱 MC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 외에도 '의뢰인K' '소문난 매너리' '속풀이쇼 동치미' '애정통일 남남북녀' '벵타터스' '미운 우리 새끼' '하숙집 딸들' '뷰티 앤 더 비스트'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했다.

특히 '일요일 일요일 밤에' 코너 '대단한 도전'에서 걸은 멀쩡하지만 속은 부실한 캐릭터로 '허우대'라는 별칭을 얻는 등 또 다른 매력을 선보였다.

이후 방송계를 잠시 떠난 뒤 2022년 하반기부터 KBS '신상출시 편스토랑' 출연을 거쳐 TV조선 '조선의 사랑꾼' 합류 등 방송 활동을 재개했다.

지난해에는 2021년 7월 혼인신고를 마친 23세 연하 여자친구 김다혜 씨와 시험관

시술 끝에 지난해 10월 딸 재이를 품에 안았다.

부부는 올해 3월 재이를 낳은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의료원에 임신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 난임 부부를 위해 3300만 원을 기부했다. 박수홍 이름으로 3000만 원을 발원 기금으로, 부부와 재이 이름으로 산모 병동에 300만 원을 후원했다.

한편 사랑꾼이자 늦깎이 아빠 박수홍은 TV조선 예능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에서 오랜만에 진행자로 나섰다.

지난달 9일 첫 방송한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는 저출산으로 아기가 귀한 요즘, 출산을 앞둔 이를 향한 응원과 생명이 탄생하기까지의 고귀한 여정을 함께하며 오직 출산 당일에만 느낄 수 있는 생생한 감동의 순간을 증계하는 국내 최초 출산 증계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출산 현장을 경험한 '딸바보 아빠' 박수홍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은 언제나 경

이롭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함이 있다"며 "남자들은 경험치가 없어서 잘 모른다. 산모를 어떻게 케어해야 하는지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며 남자들이 꼭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방송에 앞서 첫 미팅 후 갑자기 병원에서 새벽에 연락이 와 아기가 나온다고 하더라. 제가 현장에 20분 만에 가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일화도 전했다. 이어 "여성분들이 아기를 낳기 위해 얼마나 송고한 희생을 하고 모든 노력을 갈아넣는 지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박수홍은 생후 7개월 재이의 '아빠'라는 용알이에 눈물을 흘렸다.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박수홍 행복해다홍'에 올린 영상에서 "아빠는 아빠란 말 평생 못 듣고 죽는 줄 알았다. 재이가 정말 고맙고 사랑해. 오늘 밤 이 순간을 진짜 못 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수홍

방송인

연습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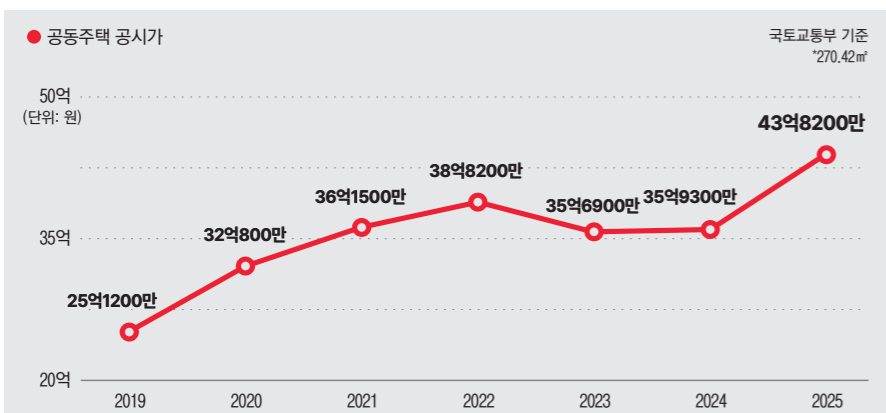
부부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압구정신현대(사진) 한 호실을 공동명의로 지난해 11월 70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해당 호실은 공급면적 183.49㎡(약 55.50평), 전용면적 170.38㎡(약 51.53평) 규모로 최근 실거래가는 올해 4월 매매된 93억 원이다. 압구정2구역 속한 압구정신현대(9·11·12차)는 재건축 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신

고가를 쓰고 있다. 부부가 매입한 후 해당 호실 실거래가가 반년 만에 약 23억 원 뚝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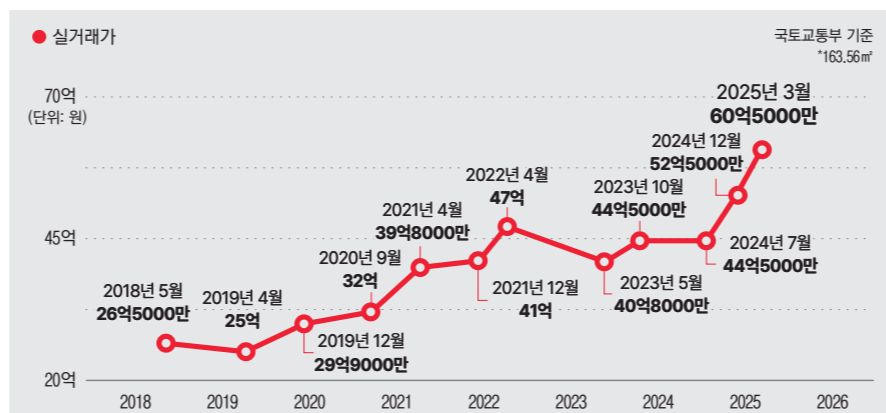
압구정2구역은 지하 5층~지상 65층, 2571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 약 2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이달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고 9월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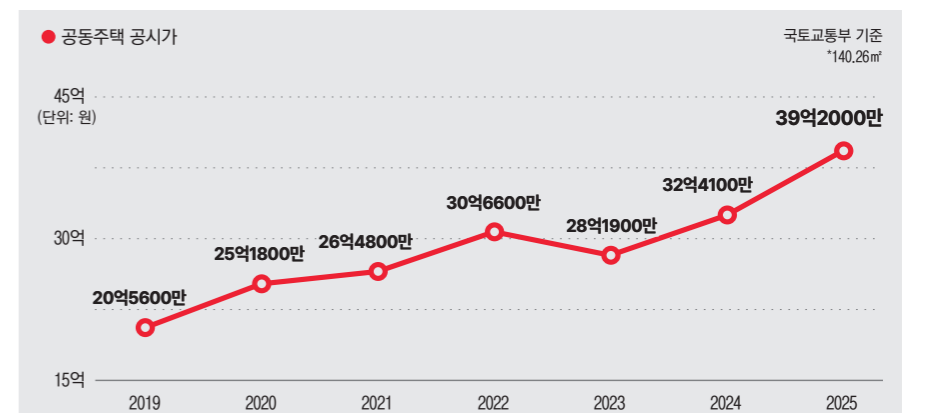
대림아크로빌



라이프미성2차



압구정현대4차



김소형

현)김소형한의원 원장



튜브 건강 의학 분야 채널 '김소형채널H'을 운영하면서 '김소형 본초 한의학'의 핵심을 담은 궁합 요리, 약차, 약초식초, 아토피밥 등 300여 개의 비법 같은 노하우를 담은 레시피를 소개하기도 했다. 2022년에는 9년 만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다.



김소형 김소형한의원장은 미스코리아 출신 한의사로 우석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한의과대학원에서 한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SBS 의무실 한방주치의, 메리이트호텔 B&I클리닉 한방주치의, G&M 비만클리닉 원장 등을 지낸 그는 우리나라 1세대 '한방 명'으로 불리는 부친 김중수 박사의 대를 이어 화병입 마름식적당노 등 난치성 생활 질환의 특효 처방으로 진료를 지속해왔다. 또한 한방 다이어트 분야의 개척자로 MBC 예능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건강보감'에 출연해 한방 상식을 널리 알려 대중에 유명해졌다. 구독자 171만 명, 누적 조회 수 4억5000만의 유

전해명

전)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장



부터 19대·20대·21대 원장을 역임한 그는 게임 기간 경기 북부 외상권역센터 유치, 개성공단 부속의원 개원,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 의정부시와 공동으로 저소득층 의료 지원, 병문안 문화 개선사업 등 지역사회 의료 발전에 앞장섰다.



전해명 전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장은 위암 및 비만대사수술의 권위자로 가톨릭대 의대를 졸업하고 1999년부터 모교에서 외과과 교수로 재직했다.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수련교육부장·외과과장·응급의료센터장 등을 지냈으며 서울성모병원에서는 암센터 준비위원장·진료부장·성인교정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3년 의정부성모병원장 취임식에서 각 의료기관과 병원이 처한 현실을 언급하고 교직원들의 비상경영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앞으로 의정부성모병원이 지역사회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경기 북부지역 유일의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3년 4월

경규한

전)리바트 대표이사



가구업계에 관행이었던 덤핑 판매를 중단하면서 리바트는 '노(NO) 세일 브랜드'라는 고급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경전 대표는 회사 유통구조도 바꿔 대리점에서 주문만 받고 본사에서 생산·배달·설치를 한꺼번에 하는 윈스톱 서비스를 도입했다.



경규한 전 리바트 대표이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현대산업개발에 입사했다. 1989년 현대리바트의 전신인 현대종합목재로 자리를 옮겨 가구 업계와 인연을 맺은 뒤 시공본부장 이사대우·관리본부장 이사대우·관리 및 지원담당 이사 등을 지냈다. 2001년 리바트 대표이사 취임 후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구조조정을 시행해 수익성을 개선했으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합판 제조공정과 목재사업부 등 규모만 크고 이익이 되지 않는 사업부를 독립시켰다. 또한 차별화된 디자인을 강조해 이탈리아 출신의 디자이너와 제휴해 공동 상품을 개발했다. 아울러 당시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드일리 임직원 일동

